

삼성, 성과급·초과이윤 몸살… 준감위 “국민 앞에 겸손해야”

노노 갈등·위법성 공방으로 먼저 준감위, 하반기 입장 구체화 방침 이찬희 위원장 “현안 의견 모을 것”

반도체 초호황이 낳은 성과급·초과이윤 배분 논쟁이 노노 갈등과 위법성 공방으로 번지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국민 앞의 겸손’을 주문하고 나섰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에서 시작된 성과 배분 논쟁은 정부의 기준 마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찬희 삼성 준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에 노사 문제도 있었고 주식시장도 급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선언한 헌법 제119조의 범위 안에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이찬희 삼성준법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위해 국가가 경제를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고사성어 ‘거고사추지만계일(居高思墜 持滿戒溢)’을 인용했

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가득 찼을 때 넘칠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성격의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성과급’에 이어 삼성까지 이익 연동 배분에 합류하면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임직원과 어디까지 나눌지가 재계 전체의 쟁점으로 커졌다. 합의 뒤에도 DS 부문과 완제품(DX)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이어졌고 소액주주 단체들은 이익 연동 성과급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성과급과 초과이윤 문제를 준감위가 공식 안건으로 다루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아직 어떤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준감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사안이 본격화되면 살펴볼 수 있고, 이사회에 가기 전 검토

토 의견이 오면 준감위가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어떤 계기에서 계획이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고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가 이뤄지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준감위가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증권가에서 나온 삼성전자 미국 주식 예약증서(ADR) 상장설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회사가 검토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달 정례회의의 연장선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익 연동 성과급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삼성 내부에서도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합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성과 배분 논쟁에는 이날 청와대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투자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답했다.

한편 준감위는 하반기 노사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상반기에는 워낙 이슈가 많아 정신없이 지나갔다”며 “하반기에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진 노사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준감위 차원의 의견을 모으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LG,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싹쓸이

AI 기반 효율개선 등 기술혁신 성과

삼성전자 8년 연속 최고상 수상
LG전자 식기세척기 등 12개 본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효율 가전 기술력을 앞세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나란히 두각을 나타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한 ‘제2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8년 연속 최고상인 에너지대상상을 수상하는 등 총 10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LG전자도 대상 3개를 포함해 총 12개 본상을 받으며 10년 연속 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에어컨으로 최고상인 에너지대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 이 제품은 AI와 모션 레이다 센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활동량과 부재 여부를 감지하고 냉방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냉방을 약하게 유지하거나 전원을 꺼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42% 절감할 수 있으며, 습도 센서를 활용한 ‘쾌적제습’ 기능으로 기존 제습 방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도 최대



LG전자가 대상 3개를 비롯해 총 12관왕을 차지하며 10년 연속으로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LG전자

30% 줄였다.

에너지기술상은 ‘인피니트라인 후드일체형 인덕션’이 수상했다. 최대 7400W의 화력을 구현하면서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갖췄으며, 공기질 센서를 활용해 조리 중 발생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감지하고 흡입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LG전자도 AI 기반 에너지 효율 기술을 앞세워 대상 3개를 포함한 총 12개 본상을 수상했다. ‘LG 휘센 AI 오브제컬렉션 티워I’ 에어컨은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제어하는 AI 콜드프리 기능과 고효율 실내기·실외기 기술을 적용해 동급 제품 대비 냉방효율을 최대 13% 높이고 전기요

금은 최대 11.5%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LG 이페이퍼(E-paper) 디스플레이도 대상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화면을 유지할 때 별도의 전력 공급이 필요 없는 초저전력 디스플레이로,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소비전력을 99% 이상 줄였다. 출시를 앞둔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 역시 대상에 선정됐다. 건조 성능을 높이면서도 전기 사용량은 기존보다 약 10%, 물 사용량은 약 18% 줄였으며 AI 자동세척 기능을 통해 식기 오염도에 맞춰 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현정 기자

중형트럭시장, TCO 중심 질적재편

(총소유비용)

단순 성능보다 실질적 수익연결 중시 하이센, 낮은 유지비·경량 설계 각광

국내 중형트럭 시장에서 타타대우모빌리티의 중형트럭 ‘하이센’이 뛰어난 경제성을 갖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트럭 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전체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축 사양’, ‘고중량 모델’, ‘고마력 엔진’ 등 실질적인 화물 운송 능력과 직결되는 ‘수익성 위주’로 완벽하게 질적 재편되고 있다.

카이즈레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중형 카고(4.5톤~8톤) 시장은 2014년 1만555대에서 2023년 513대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준대형 카고(8톤~16톤) 시장은 743대에서 7397대로 약 10배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총소유비용(TCO·Total Cost of Ownership) 중심의 시장 재편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량 구매 가격뿐 아니라 연료비와 정비비, 차량 가동률, 잔존가치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변화속에서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트럭 하이센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하이센은 캡 폭을 최대 115mm 줄이고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트럭 하이센

캡 높이를 최대 325mm 낮추며 기존 중형트럭과 차이점을 뒀다. 또 새롭게 개발한 220mm 프레임을 적용했고, 최대 15톤급 축설계 허용하중을 갖추고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하이센은 기존 중형급 트럭보다 약 15~20% 낮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였으며, SCOROnly 후처리 시스템과 인-실린더 방식 DPF 재생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 개선과 유지보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연료필터 교환 주기도 10만km로 기존 중형급 트럭 대비 약 2.5배를 늘리고 밸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해 정비 비용과 차량 비가동 시간을 줄이는 데도 주력했다. 차량 경량화 역시 운송 효율을 높이는 요소다. 하이센은 최소 공차중량을 4470kg까지 낮춰 동급 대비 적재 여유를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에어로, 5억弗 규모 해외공모 채권 발행

수요예측 약 33억달러 주문 들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우주항공 기업 최초로 5억달러 규모의 해외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수요예측에는 발행액의 약 7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과 아시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달러화 채권 수요예측을 진행해 5억달러(약 741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만기 3년의 고정금리부채권(FXD)이다. 발행금리는 동일 만기 미

국 국제 금리에 가산금리 83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최저제시금리(IPG) 115bp보다 32bp 낮아졌다. 주관사로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크레디아그리콜증권, UBS가 참여했다.

수요예측에는 발행액의 약 7배인 33억달러의 주문이 들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국내 방산·우주항공 기업 최초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했다.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과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한국타이어, 로봇용 타이어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

무인소방로봇 ‘아이플렉스’ 공급

한국타이어가 비공기압 타이어 기술력을 앞세워 재난 대응 특수 모빌리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개발한 무인소방로봇에 차세대 비공기압 타이어 ‘아이플렉스(i-Flex)’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무인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국내 최초 다목적 무인 차량 ‘HR-세르파’를

기반으로 65mm 고성능 방수포, 시야개선키메라, 자체 분무 장치, 원격 조작 기능 등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타이어는 현대로템과 약 5년간 공동 개발을 거쳐 고위험 화재 현장에 최적화된 차세대 비공기압 타이어를 선보였다. 무인소방로봇의 고하중 구조와 험로 주행 환경을 고려해 하중 지지에 용이하고, 압축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이중 아치’ 구조를 적용했다. 또 오프로드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불규칙한 충격을

일차적으로 흡수하는 ‘외측 아치 구조’와 차량 구동부 측에 전달되는 진동을 완화하기 위한 ‘내측 아치 구조’, 내·외측 아치를 연결하는 ‘힌지 구조’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뒷받침한다.

한국타이어는 “미래형 타이어 기술을 무인 특수차량, 자율주행, 로봇티 모빌리티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